

“My heart is in the work.”

-Andrew Carnegie



카네기멜론대학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 강철왕 카네기의 위대한 ‘자선가 정신’

미국에는 미국을 발전시킨 위대한 기업가가 많다. 그 중 한 명이 ‘앤드류 카네기’다. 우리에게 강철왕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그는 철강 산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본인 또한 거대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필자는 1980년대에 강철왕 카네기가 만든 카네기멜론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공부했다. 카네기가 처음 학교를 설립했을 당시의 이름은 ‘카네기공과대학’이었다. 이후 부자 은행가인 멜론이 만든 ‘멜론대학’과 통합해 카네기멜론대학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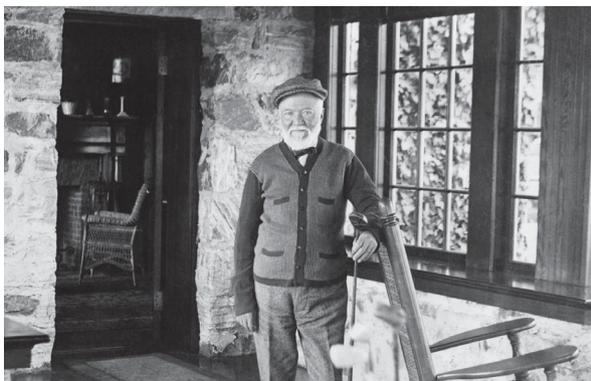
40여 년 전이지만, 아직도 학교 도서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받았던 충격이 생생하다. 도서관 입구에 써있던 문구 때문이다. ‘My heart is in the work.’ 공부도 일도 결국 잘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필자로

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었다. 당시에는 카네기를 일 중독자 정도로 규정하고, 졸업 때까지 설립자의 철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필자가 카네기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국회도서관장으로 부임한 이후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 어린 시절엔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고, 잡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부모찬스’는 물론 학연과 지연의 끈도 없었던 그가 미국 경제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순전히 기업가로서의 자질 덕분이었다. 성공한 기업가는 남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재를 발굴하고, 중시한 기업경영이 특출했다. 아마도 카네기공과대학을 설립한

이유도 인재의 중요성을 인지한 철학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카네기는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는 모비명을 남겼다.

카네기가 가졌던 기업가 정신은 위대했다. 그러나 필자는 카네기의 ‘기업가 정신’보다 은퇴 이후의 ‘자선가 정신’에 더 큰 위대함을 느꼈다. 66세에 은퇴한 그는 18년간 철강 생산을 통해 모은 재산의 90%를 자선 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부하는데 썼다. 자신이 일궈낸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 기업가는 그간 많이 있어 왔다. 대부분 전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떼어내 사회에 던져주는 기부 형식이다. 그러나 카네기는 달랐다. 기업을 운영하듯 자선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카네기의 자선사업 중 대표적인 업적이 도서관 건립이다. 그는 미국과 영국에 2500여개의 지역도서관을 만들었고, 그 도서관들은 여전히 각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카네기는 자신이 도서관을 통해 얻은 경험을 잊지 않고 사회에 돌려줬다. 기업을 일궈내 부를 창출했듯, 자선기업을 만들어 공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지금도 남아있는 카네기재단, 카네기협회, 카네기교육진흥재단,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등이 그가 기획하고 지휘한 자선사업이다.



자신이 한평생 모은 재산의 가치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그렇게 일군 부를 사회에 환원할 때엔 그 기부 대상이 본인이 느끼는 가치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정 부분을 떼 나누듯 기부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식의 기부는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가 낭비로 이어질지 모른다.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통한 경제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선가 정신’도 중요하다. 얼마 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발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여느 기업인들처럼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전문가를 모아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

하는 자선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안다. 우리 사회에서 정부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정부 예산은 규정에 따라 지출해야 하고, 규정에 따른 감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때문에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민간의 자선은 다르다. 경험적으로 자선이 필요한 영역을 인지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그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밖에 없다.

카네기가 설립한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카네기를 일 중독자쯤으로 여겼던 필자는 4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카네기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카네기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막대한 부를 창출했고, 이를 통해 미국 경제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를 더욱 빛나게 한 건 ‘기업가 정신’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직접 찾아내 사업을 하듯 기부를 한 ‘자선가 정신’ 덕분이다. 카네기는 기업을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선사업을 할 때도 ‘My heart is in the work.’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됐다. 🌍

성공한 기업가는  
남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재를 발굴하고,  
중시한 기업경영이 특출했다.  
아마도 카네기공과대학을  
설립한 이유도 인재의 중요성을  
인지한 철학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카네기는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는  
모비명을 남겼다.